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의 양상과 의미

이 후 남*

1. 머리말
2. 여우 퇴치담의 분류 기준
3. 여우 퇴치담의 양상
 - 1)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 2)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 3)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
4. 여우 퇴치담의 내적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여우는 설화나 문학 작품 속에 흔히 등장하는 異物이다. 특히 고전소설에서 여우는 본체를 숨긴 채 인간으로 변신하여 등장인물을 속임으로써 문제시된다. 곧, 본질을 간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고전소설에서 여우는 악마적 속성을 지닌 대표적인 이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우와 관련한 논의는 설화 속 여우 이미지의 다양한 양상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¹⁾ 그러다가 최근 들어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도출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1) 강진욱, 1994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 : 김지선, 2005

었다. 박대복·유형동은 <전우치전>과 <이화전>을 대상으로 하여 여우의 초월성 양상을 살폈는데, <전우치전>의 여우는 신이성과 괴이성이 병존하지만 <이화전>의 여우는 괴이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고 보았다.²⁾ 또 박대복은 <삼한습유>에 등장하는 여우의 초월성을 上帝와 연관시켜 면밀히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상제와 대등한 초월 능력을 지닌 여우의 악행이 상제의 절대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³⁾ 이 논의들은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하긴 했으나 주로 여우의 초월적 성격을 구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에 퇴치에 초점을 맞춘 본고와는 연구 방향이 다르다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이명현은 여우의 神性和 魔性이라는 이중적 관념이 고전서사에 수용된 양상을 분석하였다.⁴⁾ 이 연구는 고전서사에 나타나는 여우를 긍정 혹은 부정으로 극단화하여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고, 여러 층위를 지닌 여우의 성격을 초월성의 분화 및 충돌 과정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신성과 마성이 공존하는 여우 설화 4편과 <전우치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작품을 조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또 <전우치전> 분석에 있어 필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처럼 여우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전소설

「한중일 여우이야기에 대한 비교학적 고찰」 『중국어문논총』 29 : 이승우, 2012 「여우 등장 설화의 변신 및 생성 양상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박대복·유형동, 2010 「여우의 超越的 性格과 變貌 樣相」 『동아시아고대학』 23. 이 논문은 <전우치전>과 <이화전> 외에도 『삼국유사』의 <원광서학>과 구비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를 함께 다루었다.

3) 박대복, 2013 「『三韓拾遺』에 나타난 香娘의 冤死와 上帝·九尾狐의 관련양상」 『어문연구』 41. 이 논문에서는 <삼한습유> 외에도 <임씨삼대록>의 구미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4) 이명현, 2014 「구미호의 이중적 관념과 고전서사 수용양상」 『우리문학연구』 41. 이 논문은 <전우치전>과 <원광서학>, <서구암 전설>, <강감찬 출생 설화>, <여우구슬 설화>를 함께 다루었다. 이명현은 이외에도 '여우'에 집중한 일련의 논의를 펼쳤는데, 주로 설화를 대상으로 한 현대적 해석 및 문화콘텐츠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포함한 한국의 설화, 야담, 현대 콘텐츠 및 중국·일본의 문헌 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본고와 연구 대상의 차이가 크기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여우의 초월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물론 문헌 기록과 구비 기록을 고찰해보면 여우는 신성과 관련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분명 지니고 있다.⁵⁾ 그런데 고전소설의 여우는 초월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존재 및 퇴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형상화되며, 대부분 퇴치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고는 이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고전소설 범위 내에서 여우 퇴치담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추출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로 여우 퇴치담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우 퇴치담이 갖는 내적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소재담 연구인만큼 여우 퇴치담이 갖는 기능 및 의미를 도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 논의가 성과를 거둔다면 기존에 알려진 작품들을 보다 새롭게 이해하고, 소재담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여우 퇴치담의 분류 기준

본고에서 사용하는 ‘퇴치’라는 용어는 ‘죽여 없애거나 물리치는’ 의미이다. 간혹 ‘감화’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 있으나, 그것 역시 일차적인 퇴치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감화 역시 퇴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작품 전체의 주인공과 여우 퇴치담 내의 주인공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전체 서사의 주인공이 아닌 퇴치담 내에서 여우와 직접적으로 대립을 겪거나, 여우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입는 사람을 ‘주인공’이라 칭하겠다.

5) 중국 문헌인 『산해경』과 『태평광기』 등에는 여우 중에서도 구미호를 매우 신성하고 기이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문헌인 『삼국유사』(제4권, 제5 의해편, 원광서학)에서도 여우의 초월적 이미지가 발견되며, 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만물편/조수류)에도 구미호의 상서로운 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 구비문학대계의 222건의 여우 관련 설화 가운데, 인간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선한 여우에 관한 각편이 소수 존재한다. 참고로 여우 설화와 관련한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이화전>과 <전우치전>에 수용된 여우 설화에 대한 논의도 각 작품론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①여우의 등장, ②주인공과 여우의 대립, ③여우의 퇴치라는 세 단계의 서사 단락을 지닌 것만을 여우 퇴치담이라 규정하겠다. 이 세 단계 서사 단락을 지닌 작품에는 <삼한습유>, <임씨삼대록>, <표강상전>, <해당향>, <이화전>, <전우치전>, <옥루몽>, <소현성록>, <태원지>, <옥난기연>이 있다. 물론, 이외에도 여우가 등장하는 고전소설이 더 있다. 그러나 퇴치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⁶⁾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또 퇴치담이 나타나더라도 그 전개 양상이 매우 유사한 경우는⁷⁾ 대표성을 갖는 한 작품의 분석을 통해 대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열 작품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여우 퇴치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여우라는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며, 적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우 퇴치담의 전체적인 맥락은 주인공과 여우 둘 사이의 인연을 기준으로 분류 가능하

6) <벽허담관제언록>에 등장하는 여우인 금화아는 악인인 숙영공주를 수련시키는 보조적 인물로서 짧게 등장하며 퇴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여우가 퇴치되지 않는 한, 숙영공주와 같은 악인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왕능전>에서는 백학사 노승이 보낸 여우가 변신 능력을 활용하여 악인 조걸을 회파시키는데, 조걸의 개과천선 직후 여우는 곧바로 서사에서 사라져 퇴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왕능전>은 고전소설 중, 여우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독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우가 인간 세상에서 벌이는 행태는 그 목적이 '악인의 개과'라는 선한 것일지라도 처첩 갈등(조걸의 정처 유씨 모해)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조걸의 딸 계화로 변신하여 동침한 것으로 만듦) 등 고전소설에서 보이는 여우의 일반적인 속성과 다르지 않다.

7) <구래공정충직절기>에서 유호영은 전생이 구미호(여와 낭낭의 명으로 주왕을 미혹시켜 은나라를 멸망시킨 소탈기)인 것으로 되어 있다. 전생의 인연으로 유호영은 구준(전생: 벽수유)과 정봉주(전생: 주화선) 부부를 모해하고 구준 집안에서 온갖 작란을 벌이다가 천자의 명으로 사형을 당하는데, 이는 <임씨삼대록>과 매우 유사하다. 또 <장인걸전>은 여우 퇴치담의 분량이 확대·부연된 <이화전>의 모방작이며(박주현, 2009 「<장인걸전>의 서사구성과 인물형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반필석전> 역시 <이화전>의 여우 퇴치담과 전개 양상(배경, 주인공 형상, 여우 형상, 조력자의 형상, 퇴치 방법, 배경 설화 등)이 매우 유사하다(김일동, 2004 「『班彌錫傳』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편 <장국진전>에는 황산도사의 명을 받은 구미호가 공주로 둔갑하여 장국진에게 독약을 먹이는데, 장국진이 여학도사의 계시를 받고 절운도로 죽인다는 내용이 단발적인 삽화로써 들어가 있다. 이는 세 번째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에 속하는 세 작품들의 퇴치담 양상과 동일하다.

다. 인연의 유무에 따라 그 양상 및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인연이 있는 경우는 다시 전세 인연과 현세 인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다음의 세 유형이 도출된다.

- ①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 ②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 ③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

첫 번째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은 주인공과 여우가 전세에서 맺은 인연이 현세로까지 이어져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결국은 현세에서 여우가 퇴치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두 번째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은 현세에 서로 인연이 없었던 주인공과 여우가 한번 만난 이후에 다시 만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여우는 種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개체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형태는 의미상 동일시되므로 여기서는 주인공과 여우가 최초의 만남 이후에 관계가 지속되느냐와 그것이 다음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세 번째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은 전세 및 현세의 인연이 전혀 없으며, 주인공이 여우를 만난 후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적 격차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유형에서는 여우의 퇴치가 곧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우와 주인공과의 관계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단절되며, 여우로 인한 또 다른 사건이 야기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 다만 자칫 ‘무관’이라는 단어를 자칫 ‘인연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나, ‘전세 및 현세의 인연이 全無하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겠다.

본고에서 선정한 열 작품을 이 세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에는 <삼한습유>와 <임씨삼대록>이, 두 번째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에는 <표강상전>, <해당향>, <이화전>, <전우치전>, <옥루몽>이, 세 번째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에는 <소현성록>, <태원지>, <옥난기연>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이 작품들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3. 여우 퇴치담의 양상

1)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으로 <삼한습유>⁸⁾ <임씨삼대록>⁹⁾ 두 작품을 들 수 있다. 아래 표는 앞서 규정한 여우 퇴치담 서사 단락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서사 단락(밑줄: 퇴치자)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삼한습유>	1) 천상 세계에서 여우가 옥녀(향랑)의 향을 탐낸다. 2-1) 여우가 향랑의 향을 훔치려다가 동자(효렴)의 도움으로 실패한다. 2-2) 여우가 현세의 여러 인간에게 빙의하여 적강한 향랑과 효렴의 혼사장애를 일으킨다(향랑의 죽음 유도 및 환생 방해). 3) 마군 속에 숨어 있던 여우가 자부대선에게 잡히고, <u>김유신</u> 에게 죽는다.
<임씨삼대록>	1) 전생에 은색 여우(옥선군주)와 갈색 여우(옥경군주)가 각각 삼태성(임창흥)과 태을성(설희광)을 흠모하여 그들을 따라 인세로 하강한다. 2-1) 옥선군주는 임창흥·설성염 부부를 모해하고, 옥경군주는 설희광·임월혜 부부를 모해한다. 2-2) 옥선군주와 옥경군주가 역모를 꾀한다. 3) 옥선군주와 옥경군주가 각각 임창흥, 설희광에게 잡혀 <u>황제</u> 에 의해 처형된다.

<삼한습유>의 여우는 '狐精'이라 지칭되는데, 전생에서는 향랑의 향을 훔치려 하고 이생에서는 향랑의 혼사장애를 일으키는 존재이다. 그러다가 자부대선의 天狗에게 잡히고, 결국은 김유신의 獵狗에 의해 죽게 된다.¹⁰⁾ 이러한 호정의 작

8) <삼한습유>의 대본은 서울대 일반도서관본(한문 필사본) 3권 3책이며, 조혜란 역주의 『삼한습유』(200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를 참고하였다.

9) <임씨삼대록>의 대본은 장서각 소장본 40권 40책이다. 이본으로 39권 39책이 있으나, 서사가 더 풍부한 이본을 택하였다. 표제는 '임시삼대록'인데, 편의상 <임씨삼대록>으로 통일하겠다(교주 및 문장부호, 밑줄, 교정부호 필자).

10) <삼한습유> 권지삼 "유신이 그것을 받아서 보니 눈은 금박을 한 것 같고, 붉은 몸은 불과 같고, 꼬리는 펼치면 깃발 같은데 바로 오래된 무덤 가운데서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천년 묵은 늙은 구미호였다. (중략) "여우는 개에게 잡히면 혼이 사라져 죽기 때문에 정신과 모습이 모두 사라진다." 마침내 사냥개를 풀어서 여우를 잡아 죽였다[庾信取視之, 眼

란 행태와 퇴치 과정은 작품 표면에 직접적으로 서사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부대선이 김유신에게 향량의 환생 경위를 설명하는 발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여우의 작란 행태가 표면에 전경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량의 전생 및 이생에서의 모든 고난이 여우의 악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량의 고난 원인을 굳이 여우의 작란 때문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여우가 악 혹은 복수의 화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이며, 그만큼 여우가 작가 및 독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으로 상제나 자부대선이 여우를 직접 퇴치할 수 있음에도 김유신에게 죽이도록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해보아야 한다. 이 작품에서 김유신은 신라의 왕에게 신임 받는 신하이자, 중국과 변방에까지 명성을 떨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아래 인용문은 상제가 김유신에게 사자를 보내어 향량의 혼사를 주관해 줄 것을 부탁하는 대목이다.

그 사람(상제의 사자: 필자 주)이 손을 들어 예를 갖추고는 말하였다. “지금 상제의 명을 받들어 어느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향량의 혼사를 주관하려 합니다. 장차 모월 모일 아무 고을 아무개네 집에서 혼례를 행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맡아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각간(김유신)에게 주관하게 하여 모르지기 一利川 가에 천 칸이나 되는 넓은 집을 짓게 하고, 향량을 그 곳에 머무르게 하면서 혼인식을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그대에게 반드시 허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¹¹⁾

이처럼 김유신은 천상의 명령에 의해 향량의 수호자로 지정되었다. 이 때문에 자부대선은 김유신으로 하여금 “오로지 인간과 가정과 국가에 화를 끼칠 것을 생각하는[專以禍人家國爲心]” 여우를 퇴치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우

如金箔，赤體如火，尾張如箕，乃古塚中假幻人形之千年九尾老狐也。(중략) “狐被見攖，則魂消而死，故神形俱滅。”乃縱獵狗，搏而殺之。”

11) <삼한습유> 권지일 “其人舉手作禮曰，‘今奉上帝命，主某郡冤死人香娘婚事。將以某月某日，行禮於某鄉某甲，而難其人。令大角干主張，須於一利川邊，造廣厦千間，香娘將僑居于此，以待成禮耳。少或遲緩，君必有咎。’”

의 위험성이 천상의 문제에서 인세의 문제로 이행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더불어 김유신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효과까지 거두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삼한습유>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은 천상 및 인세에서의 악의 근원을 완전히 소거하여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임씨삼대록> 역시 <삼한습유>와 동일하게 여우 퇴치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여우와 주인공의 전세 인연이 설정되어 있다. <임씨삼대록>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옥선군주와 옥경군주는 전생이 각각 銀狐와 褐狐이다.¹²⁾ 그런데 이들의 현세의 모습을 여우가 둔갑한 인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옥선군주와 옥경군주의 현세에서의 본체는 인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서사 전반에 걸쳐 “녹디(鹿臺)의 달기”나 “미골(埋骨) 쓴 여이”, “호영오(나관중의 《平妖傳》에 등장하는 늙은 백여우)” 등에 비유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전생 신분이 여우였다는 것이 서사 초반부에 밝혀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옥선군주와 옥경군주의 전생 신분을 여우라고 명시한 것은 두 사람이 상당한 악인일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암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작가는 현세의 악한 심성이 여우라는 전생 신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악인을 형상화하는 데 여우의 상징적 모습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주인공과 여우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각할 것임을 독자들에게 암시해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옥선군주는 임창홍·설성염 부부를 모해하다가 오랑캐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임창홍에게 잡혀 황제의 명으로 저자에서 목 잘려 죽는다. 또 옥경군주는 설희광·임월혜 부부를 모해하다가 친부인 한왕과 함께 역모를 꾀하는데, 설희광에게 잡혀 옥경군주와 함께 처형된다.¹³⁾ 여기에서 전세 인연

12) <임씨삼대록> 권지십구, 34-35면 “은 갈 낭회 또 티성의 풍도를 흠모하여 썩로오물 티성이 디로호여 은호를 옥테기 알외고 녀와낭낭이 어구의 본형 구미호를 민드라 가도왔더니 녀선이 옥경의 모히무로 낭낭이 구미호로 연치를 매워 옥경의 니르니 구미회 도로 은회되어 귀운을 거두어 하세호고 갈호는 은호로 더브러 호가지로 횡주호여 티을을 설가의 보닛을 보고 티을의 알피 히아치니.”

13) 옥경군주의 죽음과 관련하여 서사 상의 오류가 발견된다. 앞서 옥경군주가 전장에서 설희광의 단칼에 죽는 것(권지이십삼, 61-62면)으로 서술되었다가, 뒤에 옥선군주가 황

이 있는 당사자(임창홍, 설희광)가 여우를 잡기는 하지만, 그 퇴치는 황제라는 국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세에서는 주인공과 여우 개인 간의 문제였으나, 현세에서는 국가라는 집단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는 <삼한습유>에서 전생에서는 향랑과 여우 둘만의 문제였던 것이 향랑의 환생을 기점으로 천상과 지상을 아우르는 넓은 단위의 문제로 가시화된 것과도 상통한다.

2)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에는 <표강상전>¹⁴⁾ <해당향>¹⁵⁾ <이화전>¹⁶⁾ <전우치전>¹⁷⁾ <옥루몽>¹⁸⁾ 다섯 작품이 해당된다. 이 중 <표강상전>, <해당향>, <이화전>

명으로 처형될 때 옥경군주 역시 함께 처형되는 것(권지이십육, 32면)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나라에 큰 해를 끼친 옥경군주가 옥선군주와 마찬가지로 황제에 의해 죽는 뒤의 서술이 서사 전개상 더 적합하다고 본다.

- 14) <표강상전>은 이명선 구장본 1책으로 유일본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2007 『古小說 解題』, 국립중앙박물관, 175-219면에서 공개한 원문 교주본을 대본으로 삼겠다. 표제는 “表姜尙傳”이며, 내제는 “표강상전”, “표강승전”이다. 편의상 <표강상전>으로 통일하겠다.
- 15) <해당향>의 대본은 완결인 국립중앙도서관본(청구기호: 한古朝48-215) 3권 3책으로 택하고, 낙질인 박순호본은 보조 텍스트로 활용하겠다. 표제는 “海棠香”이며, 내제는 “해당향”이다. 편의상 <해당향>으로 통일하겠다(교주 및 문장부호, 밑줄, 교정부호 필자).
- 16) <이화전>은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충남대본, 총 2종의 이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1책 21장으로 완결이며, 표제는 “니화전”, 내제는 “니화전”이다. 충남대본은 1책 27장으로 절반 가량의 내용이 낙질이다(이종필, 2014 『“이화전”에 나타난 임진전쟁의 기억과 상상적 존재들의 의미』 『동방학』 30, 171-173면). 본고는 완결인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대본으로 삼고, 편의상 <이화전>으로 통일하겠다(교주 및 문장부호, 밑줄, 교정부호 필자).
- 17) <전우치전>의 이본 19종은 ‘전우치전 계열’과 ‘전운치전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운치전 계열’이 <홍길동전>과의 영향 관계에서 벗어난 독자적 계열이라 평가받고 있다. ‘전운치전 계열’ 중, 先本이자 最古本으로 알려진 이본은 경판 37장본(장서각 소장본)이다. 또한 이 이본에 ‘여우 퇴치담’이 상세하게 드러나므로 본고의 대본으로 삼겠다. 표제는 “전운치전”이며, 내제는 “던운치전”이다. 다만 주인공의 이름이 ‘전운치’이나 대표성을 갖는 명칭인 ‘전우치’로 통일하여 쓰고, 제명 역시 <전우치전>으로 표기하겠다(교주 및 문장부호, 밑줄, 교정부호 필자).
- 18) <옥루몽>의 이본은 국문 활자본, 국문 필사본, 한문현토 활자본이 있는데, 한문현토본의 경우 모두 전 3권 체제로 되어있다. 원작이 한문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한문현토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회동서관본 계열과 덕흥서림본 계열로 나뉘며, 내용상의 큰 차이는

세 작품과 <전우치전>, <옥루몽> 두 작품은 퇴치담의 성격이 조금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 2>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서사 단락 1(밑줄: 퇴치자)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표강상전>	1) 동자로 변신한 여우가 산중에서 표강상 앞에 나타난다. 2-1) 동자가 미인으로 변신하여 표강상을 유혹한다. 2-2) 표강상이 미인의 구슬을 삼키자, 미인이 다시 동자로 변신하여 표강상의 팔을 찢는다. 3) 표강상이 <u>명월도사</u> 에게서 받은 부채를 휘두르자, 동자가 사라진다. ----- 2) ' 동자가 표강상을 도둑으로 모함하여 위기에 빠뜨린다. 3) ' 동자가 여우로 변신하자, <u>표강상</u> 이 칼로 찢러 죽인다.
<해당항>	1) 여우가 미인으로 변신하여 유곤옥 곁에 나타난다. 2) 술에 취해 잠든 유곤옥을 희롱한다. 3) <u>유람</u> 을 보고 도망친다. ----- 1) ' 여우가 화소저로 변신해 유곤옥 앞에 나타난다. 2) ' 유곤옥을 친압하려 한다. 3) ' 유곤옥이 <u>악비</u> 에게서 받은 보검을 휘두르자, 찢려 달아난다. ----- 1) ' ' 여우가 소년으로 변신하여 유곤옥 앞에 나타난다. 2) ' ' 유곤옥이 여우에게 유혹된다. 3) ' ' 유곤옥이 <u>악비</u> 의 계시를 듣고 보검을 휘두르자, 달아난다. 3) ' ' ' 유곤옥이 여우의 굴을 발견했을 때, <u>유람</u> 이 나타나 소탕한다.
<이화전>	1) 백발의 노옹과 노고로 변신한 여우 한 쌍이 전라도 여산의 은행나무 속에 살면서 고을 원님들을 죽인다. 2) <u>이화</u> 가 <u>이여백</u> 혼령의 지시를 듣고 은행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만류에 부딪힌다. 3) 결국 은행나무를 베어냄으로써 숫여우만 죽인다. ----- 1) ' 암여우가 도망쳐 중국으로 들어간다. 2) ' 암여우가 귀비를 죽이고 둔갑한 후, 황제에게 이화를 참소한다. 3) ' <u>이화</u> 가 <u>이여백</u> 혼령의 지시대로 소매 속에 보라매를 넣고 들어가 암여우를 죽인다.

없다. 본고의 대본은 회동서관본 계열을 교주한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영웅소설(2)』(장효현 외, 200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다.

〈표강상전〉의 표강상은 여우와의 첫 대면에서 여우가 휘두른 칼에 팔이 찢리는데, 조력자의 신물을 통해 일차적으로 여우를 퇴치한다. 이후 표강상이 여우 구슬을 삼킨 것에 대한 여우의 복수가 시작되면서부터 둘 사이의 현세 인연이 이어진다. 그러나 표강상은 여우와 재회하자마자 한 칼에 찢려 죽임으로써¹⁹⁾ 자신의 무예만으로 여우를 제거한다. 특히 〈표강상전〉의 여우는 주인공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여우 구슬을 잃자마자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여기에서 〈전우치전〉과 같이 주인공의 몸속에 들어간 여우 구슬의 특정한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여우 구슬이 여우의 힘의 근원을 나타내는 수단적 의미만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강상전〉의 여우 퇴치담은 남주인공의 영웅성 발현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더불어 후반부에 펼쳐지는 두 차례의 군담 이전의 서사 중, 표강상의 영웅성이 발현되는 데 여우 퇴치담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해당향〉에서 여우는 남주인공 유곤옥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여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인간(미인, 화소서, 소년)으로 변신하여 끊임없이 유곤옥을 유혹한다. 이 과정에서 유곤옥은 무기력하게 희롱을 당하거나 살인자로 몰리는 등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데, 그때마다 두 번째 결연자인 유량과, 악비의 신물 및 현몽에 의해 겨우 모면한다. 그리고 여우의 완벽한 소탕은 유량에 의해 이루어진다.²⁰⁾ 이처럼 〈해당향〉은 주인공의 능력 발현에 초점이 맞춰진 〈표강상전〉과는 달리 조력자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량은 다섯 명의 부실 중 유일한 기생 출신임에도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여우 퇴

19) 〈표강상전〉 20a면 “강승이 칼을 엮회 감초고 동즈을 지르야 홀 차의 발셔 문을 차고 다라난” 지라 강승이 문을 차고 니다르니 두어 거름의 붓쓸게 된지라 동즈 변혀여 미호가 되어 놓퓌 나무로 치닷거늘 강승이 몸을 소” 와 미호 치다름을 즈바 싸의 썬러치니 제웃지 술기를 바라리요 강승이 칼을 썬여 질너 주기고 초당으로 도라오니.”

20) 〈해당향〉 권지삼, 52면 “슈유의 안기 거치고 벼롬이 그치며 일위 도시[유량] 우의로 편천혀여 어스[유곤옥]의게 읍혀여 왈 “복은 산님 은스라 세스의 무관하나 악왕의 씬을 감중혀고 어스의 정성을 스모혀여 특별이 ” 르러 요마를 쏘츠시니 츠후는 근심이 업스리라” 혀거늘 어시 감스혀여 스펜코즈 하니 도시 퍽악[익]디호를 타고 나느드시 산을 너머가더라 어시 정신을 슈습혀며 역줄이 츠” 이러나 그 궁글 보니 궁[구]명 밧기 죽은 여회 무슈혀니 도시[시] 구미회라 어시 계인으로 더부러 괴이히 녀기고 죽은 여회를 거두어 동구 밧게 술르니 음연이 만공혀공[고] 악취 미산혀더라 더소합 삼십이거러라.”

치담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 더불어 여우와의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유곤옥과 매소저(다섯 번째 결연자)의 인연이 맺어진다는 점에서 애정 결연을 중심 구조로 하고 있는 작품의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 하겠다.

〈이화전〉의 경우는 ‘만년 묵은 큰 자라 퇴치담’을 포함한 요괴 퇴치담이 작품 전체의 주요한 삽화로 자리한다. 그 중에서도 여우 퇴치담은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 첫 번째는 조선을 배경으로 벌어지는데, 이때 이화는 은행나무에 사는 천년 묵은 여우 한 쌍 중 숫여우만 죽이게 된다. 곧 암여우까지 완전히 소탕하지 못함으로써, 미완의 과업으로 남겨두게 된 것이다. 또 첫 번째 퇴치담에서는 관리로서의 이화의 지도자적 면모가²¹⁾ 돋보이기는 하지만, 이어백 혼령이라는 조력자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퇴치담은 중국으로 배경을 이동하여 이루어진다. 조선에서 도망친 암여우는 중국으로 들어가 귀비를 죽이고 둔갑한 후, 황제에게 이화를 참소하여 잡아들이도록 한다. 그러나 이화는 다시 한 번 이어백 혼령의 계시를 받아 보라매를 소매 속에 숨겨 入朝한다. 이 과정에서 이화는 조선의 의복을 벗고 들어오라는 황제와 귀비의 명에 부딪히지만, 잠재되어 있었던 능력을 발휘하며 당당히 항거한다.²²⁾ 그리고 아래 인용문과 같이 보라매가 귀비의 두 눈을 쬐아 먹자, 여우는 본형을 드러내며 죽는다.

21) 〈이화전〉 15-16면 “모든 관니와 빅성이 일시의 말녀 왈 “이 남기 극히 영검호와 나모 우히 빅슈 노용 노괴 소리ᄃ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 변화 무궁하니 이 남글 버히신 즉 빅성이 다 죽기 쉽스오니 성쥬기도 해 잇스은가 호느이다” 원[이화]이 디로왈 “너히 무슴 지감이 잇노라 감히 너 명을 거스리느뇨 □ 순의치 아니하니 나모 속 요샤를 잡디 못호면 반드시 너히을 이 창검으로 참별호리라 썰니 남글 버혀 착실이 다 잡아오라” 호령 하니 즐성이 산이 문혀지고 골이 터지는 듯하니 모든 군시 문득 황검용약호여 일시의 드라드러 버히니 (중략) 일시의 비러 왈 “이 남기 변이 이 ᄃ즈오니 덕분의 버히디 마스이다” 원이 문득 고성디즐왈 “너히 관원의 지휘을 바다 몸이 비록 진호나 마지아니려든 남기 지변이 여츠호미 버히는 비라 너히 방즈히 구러 디스을 이러듯 그릇게 하니 반드시 살이지 못호리라” 호령이 이 ᄃ즈으니 제군이 마디못호여 일시의 버히니라.”

22) 〈이화전〉 30-32면 “스관이 나아가 웃오슬 벗고 들기을 황명을 니룬디 니혜 진목즐왈 “조선 네의국 지방 사름이라 쥬고만호 쥬전의도 옷 벗고 뵈는 일니 업거늘 호믈며 황테 만승지전의 옷 벗고 뵈는 도리 이시리요” 스자를 물니치고 점점 나아오더니 (중략) 장시 일시의 문을 닷고 오살 벗기라 하니 니혜 고성왈 “비록 황상 명이 계시나 죽을지언정 오손 벗디 못호리라” 호고 손으로 모든 당스를 밀치고 정전의 드러가니.”

해[이화] 황상기 팔빅고두흔 후 문득 사미로서 띠을 너여 노흐니 바로 귀비의 머리의 나라 안자 빅호의 두 눈을 조아먹으니 귀비 변호야 문득 황금 갖흔 여니 되거 놀 황테 디경실식호사 좌우로 호야곰 쓰어니라 호시고 (중략) 여이 죽음을 일만 조각의 너여 귀인의 신위를 위호시고 제문 디어 제호시고²³⁾

이처럼 <이화전>의 여우 퇴치담은 과거에 합격했으나 오랫동안 벼슬을 못하던 이화라는 불우한 인물을 조선과 중국 양국에서 영달하게 만들어주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화전>의 암여우는 중국 천자의 귀비가 되기는 하지만, 국가적 혼란보다는 오로지 이화에게 복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화전>의 여우 퇴치담은 자기 짝을 잃은 여우의 개인적 복수로 인한 현세 인연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 주인공의 잠재된 능력과 조력자의 초월적 능력을 동시에 발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강상전>과 <해당향>의 기능이 혼합된 모습을 보인다.

<표 3>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서사 단락 2(밑줄: 퇴치자)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전우치전>	1) 처녀로 변신한 여우가 산길에서 전우치 앞에 나타난다. 2) 전우치가 여우 구슬을 삼키고, 과거 급제 후 산천유람을 일삼는다.
	1) ' 과부로 변신한 여우가 세금사에서 전우치 앞에 나타난다. 2) ' 전우치가 천서 세 권을 빼앗아 한 권을 습득한 후, 온갖 작란을 벌인다.
<옥루몽>	3-1) 전우치가 서화담과의 도술 경쟁에서 패배한다. 3-2) 전우치와 서화담이 함께 여우를 소탕하러 떠난다.
	1) 여자로 변신한 여우가 백운도사와 강남홍의 둔갑술 대화를 엿듣다가 강남홍을 보고 사라진다. 1) ' 여우가 소보살로 둔갑하여 남쪽 오랑캐 왕의 처가 된다. 2) ' 명나라의 양창곡, 강남홍 군대와 대결한다. 3) ' 강남홍이 부용검과 백운도사의 보리주로써 소보살을 제압하여 감화시킨다.
	1) ' ' 소보살의 여우 동료가 소보살로 위장하여 북쪽 오랑캐 왕의 처가 된다. 2) ' ' 명나라의 양창곡, 강남홍 군대와 대결한다. 3) ' ' 극락세계로 승천해있던 진짜 소보살이 나타나, 자신의 여우 동료들을 모두 호로병 속에 가둔다.

23) <이화전> 32-33면.

〈전우치전〉과 〈옥루몽〉의 여우 퇴치담은 앞의 세 작품과 같이 현세 인연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우치전〉은 주인공 전우치의 도술 획득과 도술을 이용한 작란 행위가 중심 서사를 이루고 있는데, 여우 퇴치담은 이와 연계되어 매우 중요한 삽화로 자리 잡고 있다. 전우치는 7세의 나이에 처녀로 변신한 여우에게 흘려 성관계를 맺은 후, 스승인 윤공의 지시를 받아 “호정”으로 지칭되는 여우 구슬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우 구슬을 삼키게 되면서 온갖 도술을 획득하게 된다.²⁴⁾

그리고 10년 후 “세금스”에서 과부로 변신한 여우를²⁵⁾ 재회하게 되는데, 이때 전우치는 “부용승”으로 제압하여 다시 한 번 여우 구슬을 요구한다. 이는 또다시 여우 구슬을 삼킴으로써 더 큰 도술을 갖고자하는 전우치의 욕망이 표출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²⁶⁾ 그런데 여우는 구슬 대신 자신의 소굴에 있는 “천서 세권”을 준다. 이에 전우치는 하룻밤 만에 천서 한 권을 통달한 후 여우를 풀어주

24) 〈전우치전〉 3b면 “입을 서로 다히고 혀를 너혀 구슬을 구을녀 운치 입의 너커늘 운치 바다 입의 너코 오리도록 주지 아니하니 너지 보치다가 못혀여 운치의 입을 버리고 너려 혀거늘 운치 인혀여 숨겼느니라 (중략) 윤공 왈 “네 이의 호정을 먹어스니 턴문디리를 통혀며 디살 일흔두 가지 변화를 부리고 또 금년 스월의 진스를 흘 거시니 이후스는 조심하라” (중략) 호정을 먹은 후로는 구후 삼십육 변화를 능통호는지라.”

25) 본고는 〈전우치전〉에서 한 마리 여우가 서로 다른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한 것으로 본다. 작가는 치밀하게 10년이 지났다고 서술함으로써 처녀(“나는 밍어스의 딸이러니 오세의 모친을 일코 계피 드러온 후로 날를 부친찌 참쇼혀여 죽이고져 호미”)에서 과부(“첩은 본디 스족부녀로 가군을 짜라 장양티슈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로 변신한 여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과부로 변신한 여우가 세금사에 전우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찾아온 이유는 일전에 빼앗긴 여우 구슬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히려 전우치에게 제압당하여 여우 구슬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천서까지 빼앗기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6) 선행 연구는 전우치가 두 번의 여우 등장 대목 모두에서 여우 구슬을 욕망한다고 보았는데(이명현, 앞의 논문, 232면), 첫 번째 여우 등장 대목에서는 전우치 스스로 구슬을 욕망한 것이 아니라 윤공의 지시에 의하여 구슬을 빼앗으려다 우연히 삼킨 것이다. 그것은 윤공이 구슬의 효과에 대해 전우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가져오라고만 말하는 대목과 입을 벌려 구슬을 되찾아가려는 여우 때문에 전우치가 갑작스럽게 구슬을 삼키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우치는 여우 구슬을 삼키고 초월적 능력을 획득하여 그 기능을 인지한 이후, 곧 두 번째 여우 등장 대목에서부터 여우 구슬을 욕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데, 여우가 둔갑술을 이용하여 나머지 천서 두 권을 가져가버린다. 또 설상가상으로 부용승을 주었던 노인이 그것을 되찾아가 버린다. 결국 전우치는 다시 여우 소굴을 찾아가지만, 끝내 길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온다.

이처럼 전우치가 천서 세 권 중 한 권만을 통달하고, 여우 제압에 매우 중요한 도구인 부용승을 잃었다는 것은 여우 구슬로부터 비롯된 전우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전우치에게 여우는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성취시켜줄 약탈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 성취를 방해할 경우에는 여우를 퇴치하지만, 악의 존재로 인식하고 퇴치하지는 않는다. 그 예로, 전우치가 여우 소굴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치의훈 시네”들을 “날날이 쳐 죽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전우치는 여우의 초월적 능력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고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전우치는 개인에서부터 국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가지 작란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여우 구슬의 마성이 천서 습득을 계기로 전우치의 몸속에서 강하게 추동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전우치가 여우를 악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서화담을 만나면서부터이다. 결말부에서 전우치는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동안의 작란을 반성하고 사제관계를 맺는다. 이 부분은 서화담이 여우의 속성을 지닌 전우치를 교화시켰다는 점에서 일차 여우 퇴치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우 퇴치담은 여우의 속성에서 탈피한 전우치와 서화담이 함께 퇴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

“그디와 상약호 일이 이스미 그디 지상호를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의 잇는 구미호를 잡아 석갑의 가도고 그 굴혈를 불지르미 엇터하뇨” 운치 왈 “이제 선성이 그 여호를 업시호시면 진실노 일국의 만횡일짜 호느이다” 화담 왈 “니 이□[제] □[그]디를 다려가려 호느니 횡장을 슈습호라” 호거늘 운치 디□[회]호여 가산을 훗터 노복을 주며[며] 왈 “나는 이제 영결호느니 여등은 무양이 이셔 나의 조선 향화를 밧들나” 호고 선영의 하직호 후의 화담을 피셔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호니 기후 사는 아지 못호니라²⁷⁾

27) <전우치전> 37a면.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화담은 전우치에게 여우를 완전히 소탕할 것을 제안하고, 전우치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자기 도술의 본체이자 근원을 제공해준 여우를 직접 소탕하는 데 동의한다는 대목은 더 이상 여우의 도술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전우치의 깨달음이 반영된 것이다. 또 이는 강림도령과 서화담이 한결같이 전우치의 도술을 “요술”로 규정하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서사가 이 시점에서 종결됨으로써 여우를 퇴치하는 상세한 과정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서화담과 전우치가 함께 여우를 소탕한 후 “영주산”에서 “선도”를 닦았음은 분명해 보인다.²⁸⁾

결국 <전우치전>의 여우 퇴치는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수련을 통해 도술을 얻은 서화담이 여우의 속성을 지닌 전우치를 깨우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화담의 유학자로서의 정대함이 드러나는 효과가 수반된다. 두 번째는 여우의 속성에서 벗어난 전우치가 서화담과 하나가 되어 진짜 여우를 소탕하는 것이다. 이상 두 번의 퇴치 과정에서 전우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서화담의 도술로 나아가려는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전우치전>의 여우 퇴치담은 여우에게서 받은 도술에 사로잡혔던 일개 말썽꾸러기 전우치가 서화담의 정체성을 수용하여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옥루몽>의 여우 퇴치 역시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 첫 번째 퇴치담은 여우가 흥도왕 탈해의 처인 소보살로 변신하여 양창곡이 이끄는 대명국에 맞서다가 강남 흥의 부용검과 보리주에 의해 제압당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소보살은 자신의 작란이 “천지의 운세”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

28) 이런 점에서 <전우치전>의 여우가 ‘퇴치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초월적 능력의 근원이자 환상의 대상’이라는 선행 연구(이명현, 앞의 논문, 234면)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전우치전>의 여우에게 신성이 내재되어 있음은 인정하지만, 주변인물의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 여우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전우치 몸속에 들어간 여우 구슬의 부정적 작용은 마성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결말부에 여우가 퇴치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전우치 역시 이를 “일국의 만행”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우치전>의 여우는 마성이 더 강한 퇴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²⁹⁾ 맹세한다. 여기서 강남홍은 소보살을 흔쾌히 풀어주고, “여우가 요술을 부리는 것은 사람이 야기한 것이며 나라가 태평하고 사람이 덕을 닦는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라고³⁰⁾ 말한다. 곧, 강남홍은 수많은 여우들을 죽여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한 요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퇴치담은 남만을 토벌한 양창곡 일행이 북쪽 오랑캐인 야율선우와 대적하는데, 소보살이 야율선우의 황후로 재등장하면서 이루어진다. 강남홍은 일전에 소보살의 맹세를 믿고 풀어준 것이기에 더욱 크게 분노한다.

한 여자[진짜 소보살]가 손에 호로병을 들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중략) 수십 명의 요괴들이 일제히 공중제비를 돌더니 수십 마리의 여우로 변하였다. 그 여우들은 다리를 끌고 꼬리를 흔들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소보살이 즉시 호로병을 기울이며 크게 꾸짖었다. “업축은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 요괴들이 슬피 울면서 모두 병 속으로 들어갔다.³¹⁾

위의 인용문은 강남홍이 부용검으로 소보살을 죽이려 할 때, 갑자기 공중에서 ‘진짜 소보살’이 나타나 여러 여우들을 호로병 속에 가두는 대목이다. 사실 진짜

29) <옥루몽> 2권 24회 “보살이 대답하였다. “이 또한 천지의 운세입니다. 어찌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백운동에 있을 때 몰래 백운도사의 설법을 듣고 일찍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생의 신분을 벗어나 버리고 부처님 앞에 귀의하여 악업을 짓지 않겠습니다.”[菩薩이 對曰 “此亦天地數 豈吾所爲리오? 吾在白雲洞時에 窺聽道士之說法호야 曾有所覺이어나와 從今以後로는 脫却塵歸佛前호야 不作惡業호리이다.”]”

30) <옥루몽> 2권 24회 “원수[강남홍]가 (중략) 말하였다. “예부터 여우의 정령이 괴상한 요술을 부리는 것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나라가 태평하고 사람들이 모두 덕을 닦으면 저놈들이 어찌 일을 꾸미겠는가? 만약 시대의 운수가 불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질지 못하면 산 속에 수없이 많은 여우 정령이 있을 텐데 어찌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있겠는가?”[元帥 曰 “自古로 狐精之作亂怪術이 因人而起호는니 國家太平호고 人皆修德則彼豈能用事 리오? 若時運이 不幸호고 人心이 不仁則山中에 有無數狐精호는니 何可盡誅리오?”]”

31) <옥루몽> 2권 39회 “一個女子 手中에 持葫蘆瓶호고 從空中下來호야 (중략) 數個十妖鬼 一齊舳斗호야 變爲數十首狐호야 曳脚搖尾호고 哀乞饒命호는니 小菩薩 乃傾葫蘆瓶而大叱曰 “業畜은 速入此中호라.” 諸妖鬼 哀涕泣而皆入瓶中호는니.”

소보살은 공덕을 닦아 극락세계로 승천한 상태였는데, 일전에 함께 지내던 여우 무리들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작란하자 제압한 것이다.

이처럼 <옥루몽>의 두 번째 여우 퇴치담은 여우가 주인공의 손에 의해 직접 퇴치되지 않고, 인간의 덕성에 의해 감화 받은 여우가 직접 자신의 동료들을 퇴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간이 아닌 여우가 여우를 퇴치한다는 점은 다른 작품들의 퇴치 주체가 모두 인간이라는 것에 비할 때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소보살은 강남홍에게 감화되어 퇴치 주체가 된 것이므로 결국은 인간에 의한 퇴치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인공 강남홍의 고차원적인 능력이 덧붙여 발현된다. 특히 “초목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불법을 듣는다면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는다[無論草木禽獸호고 聽佛法者는 一破憍陣則更不作惡業호나니].”는 강남홍의 말이다, “은덕을 입은 후에 어찌 인간 세계에 악업을 짓겠느냐[蒙將軍慈悲之德호야 (중략) 何敢現形人間호야 更作惡業이리오].”는 소보살의 말은 교화와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옥루몽>은 여우와 같은 요괴도 인간의 덕화에 의해 교화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줌으로써, 여우의 선악의 양면을 담지하고 있는 독특한 작품이라 하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우치전>과 <옥루몽>의 생물학적 여우에 대한 인식이 상통한다는 점이다. <전우치전>의 결말부에서 서화담은 전우치에게 여우를 잡아 석감에 가두자고 하지, 죽여 없애자고는 하지 않는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여우를 가두어둠으로써 세상과 단절시킬 목적이겠으나, 여우의 교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옥루몽>에서도 여우는 감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기에 소보살은 여우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호로병 속에 가두어 승천한 것이다. 이렇듯 <전우치전>과 <옥루몽>은 여우의 속성을 지닌 전우치와 여우인 소보살이 여우의 마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전히 마성을 지닌 생물학적 여우를 교화시킨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하겠다.

3)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

전세 및 현세의 인연이 없는데 퇴치되는 유형에는 <소현성록>³²⁾ <태원지>³³⁾ <옥난기연>을³⁴⁾ 들 수 있다.

<표 4>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 서사 단락(밑줄: 퇴치자)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	
<소현성록>	1) 한 村家에서 여인으로 변신하여 살던 여우가 ³⁵⁾ 산수유람 중인 소운성과 만난다. 2) 여인이 소운성을 유혹하지만, 소운성이 본체를 알아채고 집으로 데려온다. 3) 소현성이 한 눈에 여우의 본체를 알아보고, <u>소운성이 단칼에 베어 죽인다.</u>
<태원지>	1) 여인국 미인들로 변신한 여우 무리가 망망대해에서 표류 중인 임성 일행과 만난다. 2-1) 미인들의 미모와 논리에 승복되어 여인국 안으로 들어간다. 2-2) 종횡을 제외한 나머지 임성 일행이 모두 미인들에게 유혹된다. 3) <u>종횡이 붉은 개가죽에 부적을 붙여 여우 무리를 모두 죽인다.</u>
<옥난기연>	1) 도사 이백영의 석갑 속에 잡혀있던 여우가 도망쳐 설 시랑 집으로 들어간다. 2-1) 여우가 설 시랑의 처 계씨를 해치고, 계씨로 둔갑하여 행세한다. 2-2) 성관계를 통해 설 시랑의 정기를 빨아먹는다. 2-3) 며느리 장난주를 해치고, 아들 설경문의 정기를 얻고자 한다. 2-4) 집에 찾아온 젊은 의원을 유혹한다. 2-5) 설경문을 난타하게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설 시랑은 나무 등걸 속에 파묻는다. 3) 국가에서 <u>장추성을 보내자, 장추성이 여우의 뒤통수에 부적을 붙여 생포한다. 황제가 여우의 국문을 듣고 화형시킨다.</u>

32) <소현성록>의 이본은 완질 5종(규장각본 21권 21책 및 26권 26책, 이대본 15권 15책, 박순호본 16권 16책, 국립중앙도서관본 4권 4책)이 존재한다. 이 중 분량이 많은 규장각본 2종과 이대본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박순호본 역시 앞의 세 이본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작품 구성상 큰 차이를 보인다(임치균, 1995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33-46면). 따라서 이화여대 소장본 15권 15책을 대본으로 삼는다. 교주본은 조혜란 외 역주의 『소현성록』(2010, 소명)을 참고로 하겠다. 더불어 본고는 전편과 후편을 합친 <소현성록> 연작을 통칭하여 <소현성록>이라 칭한다.

33) <태원지>의 대본은 유일본인 장서각 소장본 4권 4책이다. 표제는 “太原誌”이며, 내제는 “태원지”이다. 편의상 내제로 표기하겠다(교주 및 문장부호, 밑줄, 교정부호 필자).

34) <옥난기연>의 대본은 완질인 연경도서관본(7권 7책)이 개인소장본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장서각 소장본(19권 19책, 1~5권 낙질)을 택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여우 퇴치담’은 장서각본 11~15권에 걸쳐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대본 선택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표제는 “玉蘭奇緣”이며, 내제는 “옥난기연”이다. 편의상 <옥난기연>으로 통일하겠다(교주 및 문장부호, 밑줄, 교정부호 필자).

이중 <소현성록>과 <태원지>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은 단발적인 삽화라 할 수 있다. <소현성록>에서 소운성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의 정체가 여우라는 것을 “호복지(狐伏在)”라는 점괘와 감식안을 통해 알았으면서도, 일부러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 소현성이 여우의 정체를 알아보는지 시험해본다. 물론 밝은 혜안을 지닌 소현성은 점괘를 얻지 않아도 여우라는 것을 꿰뚫어본다. 결국 소현성의 호령에 놀라 본체를 드러낸 여우를 소운성이 단칼에 죽임으로써 퇴치담은 마무리된다.³⁶⁾ 이처럼 <소현성록>의 여우 퇴치담은 소현성의 정인군자적 기질과 소운성의 다소 오만하면서도 호방한 기질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곧 두 사람의 비범한 능력 발현이 기저에 깔려있기는 하지만, 군자성과 영웅성이라는 인품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교윤리 실천의 전형인 소현성을 우위에 두는 <소현성록>의 작가의식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한편, <태원지>에서 여우는 여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미인으로 등장한다. 사실 <태원지>에 등장하는 여러 이물들은 본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 일췌이다. 혹 인간의 형상을 갖추었더라도 ‘쇠 몸에 구리 머리(외로운 섬 응천대장군)’이거나, ‘긴 수염에 새 부리(자정동 쥐 요괴)’를 지니는 등 불온전한 형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유독 여인국의 여우들만이 “턱 아리 고이흔 털”이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다. 더불어 여인국의 여인들은 이미 중국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대화를 끌어

35) 소운성은 ‘여인으로 변신한 여우’를 만나기 이전에 계명산에서 다섯 요괴를 퇴치하는데, 그 중 여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여우는 “황의를 닦으며 얼굴이 옥 갓”은 “흔 요괴”로 묘사되고 있다. 곧 나머지 네 요괴(평, 뱀, 거북, 돌사자)들과 더불어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 뒤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변신한 여우’가 이 다섯 요괴의 죽음을 자기 동료에게 들음으로써 미리 소운성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여우와 소운성이 간접적인 인연을 맺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우 혼자서 소운성의 정기를 빼앗아 다섯 요괴의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간접적 인연이라 보기 어렵다.

36) <소현성록> 권지구, 35-36면 “승상이 크게 꾸지저 왈 “네 엇던 업툵이완디 감히 요술로 인형을 끼고 군즈를 소기고져 호느뇨?” 혼 소리 호령이 나매 그 요괴 즈연 므음이 썰니고 두리워 즈연이 하당고두후매 승상이 다시 즐왈 “네 마츄내 본형을 도망코져 호느디?” 언미필의 혼 소리를 디리고 금모 구미회 되어 계하의 업테니 운성이 존 칼흘 싸혀 낭단의 굶츄니 당상당해 일시의 소리 딜러 놀라느디라.”

가는데, 중화에 대한 뛰어난 지적 배경과 더불어 외양적인 매력까지 갖추었기에 임성 일행이 쉽게 미혹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작품 전체의 주인공인 임성은 작품 내에서 천명에 대한 불확신과 거듭된 고난으로 인해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자주 보이는 인물이다. 여기에서도 “님덕지 기호교물(奇好狡物)”이라는 회제목에 부합하듯, 임성은 여우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턴하 절식미인”이라 칭한다. 그러나 임성의 책사인 종황만이 뛰어난 통찰력으로 “분명흔 요괴”라는 것을 파악한다. 결국 종황은 붉은 개 가죽에 부적을 붙여 여인들에게 던지는데, 그 개가죽은 누런 개로 변신하여 여인들을 물어 죽인다. 이를 통해 여인들은 사람의 진액을 빨아먹는 천년 여우였음이 밝혀진다.³⁷⁾

여기서 종황이 제시한 퇴치 방법이 적중하는 것을 볼 때, 종황은 여우의 퇴치 방법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인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요괴국에서도 종황은 既知를³⁸⁾ 통해 요괴들을 퇴치한 바 있다. 이는 종황이 어려서 천서 세 권의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박학다식하며 감식안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황은 자신이 요괴를 제어한 공을 임성이 천명을 받은 덕택으로 돌린다.³⁹⁾ 이로써 종황의 여우 퇴치는 임성의 천

37) <태원지> 권지이, 7b-8b면 “스미 가운데로조츠 혼 가족을 니여 압히 노호니 문득 화하야 혼 황견이 되어 녀왕의게 드라드러 무려 죽이니 구 공췌 대경하야 문득 드라노고져 홀시 미빅 등과 모든 군시 일시의 가족을 니여 더지니 누른 개 수빅이 되어 일시의 총돌하며 개개히 무려 죽이니 구 공췌와 모든 시네 다 죽은 후의 모다 보니 녀왕과 구 공췌는 흑 쏘리 널굽 다섯 셋 가진 여이오, 시녀 등도 쏘흔 여러 히 늙은 여이러라. (중략) 미빅 왈 “이거시 세상의 이션 지 오리여 일천 년을 봄을 삼고 일천 년을 가을을 삼으며 쏘 사람을 만히 잡아 먹었는 고로 능히 사람의 진익을 아스 이러툷 작변호는지라 이제 우리를 만나미 음심이 대발홀 썬 아니라 요술노 미혹현난케호 후 잡아먹고져 호미니이다.”

38) ‘既知’라는 단어는 ‘未知’의 대립항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필자 역시 <태원지>의 원해가 “미지와 기지의 공간성이 혼합된 곳”이라는 견해에 공감한다(홍현성, 2010 「<태원지>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306-310면).

39) <태원지> 권지이, 9a-13b면 “미빅이 쏘흔 절하야 왈 “이는 췌공의 신위룰 힘넙으미라 엇지 신의 공이리잇고?” (중략) 미빅 왈 “(중략) 저 즘음디 모든 요괴 작변도 신이 약간 제어하나 이 엇지 황의 직죄리잇고 췌공이 만일 심상흔 사람이면 이곳툷 대희의 엇지 그만 고경만 지너리오 일인도 상호 니 업시 오리오.”

명 실현을 조력하는 일이자, 천명을 받은 임성에 의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옥난기연>에는 무려 5권(11~15권)에 걸쳐서 여우 퇴치담이 삽입되어 있다. <옥난기연>은 장 평후와 장 사마 형제의 배우자 결연담과 그 자식 대에 대한 이야기가 혼합되어 전개된다. 그 중 장 사마의 장녀인 장난주가 설씨 집안에 시집가면서 여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우는 매우 주도면밀하며 한 명의 주요한 등장인물로서 활약한다. 그렇기에 서술자에 의해 생각과 말이 서술되고, 행동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퇴치담의 분량이 많은 만큼 여우의 작란 행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설씨 집안에 들어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이다. 본래 이 여우는 도사 이백영이 석갑 속에 잡아두었던 “구미호 업축”인데, 도사가 나간 틈을 타 설 시랑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설 시랑의 처 계씨와 설경문의 처 장난주에게 위해를 끼친다. 이는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여성들을 집안에서 제거함으로써 남성들의 정기를 흡입할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설씨 가족들은 모두 여우의 본체를 간파해내지 못하며, 여우의 온갖 폐악을 답답하리만치 견뎌내는 설경문 부부의 모습은 천성 대효를 지닌 선인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두 번째 작란 행태는 부녀자의 도리를 어김으로써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설 시랑이 여우에게 정기를 너무 많이 빼앗겨 사경을 헤매자, 설경문은 나이 어리고 잘생긴 의원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여우는 이 틈을 타 의원에게 다가가 유혹하는데, 분개한 의원이 소문을 내어 임금에게 계씨를 징치하라는 표문이 올라가게 된다. 국가에서 계씨를 처벌하려는 명목은 부녀자가 외간 남자를 유혹하여 婦道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⁴⁰⁾

이처럼 <옥난기연>의 여우는 어떤 남성이건 가리지 않고, 오직 정기 흡입에 몰두하고 있다. 즉 자신이 행세하고 있는 계씨라는 부녀자의 도리를 망각하여 위장술에 허점을 남기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으

40) <옥난기연> 권지십사, 32a-32b면 “어스의 쇼계 천정의 올라 ‘후문 부네 가부를 농락하여 더러운 정티와 천누훈 형시 썰니 다스려 규문을 말키고 음황찰녀를 징계하여지이다’ 훌터.”

로 여우는 결국 퇴치되는데, 그것은 국가가 개입된 상태에서 〈옥난기연〉 작품 전체의 주인공인 장추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성포향의 일위디장[장추성]이 몸의 용복을 입고 머리의 속발관을 정제하며 손의 상방검 드러 밧그로서 드러오니 미회 혼비백산하여 미쳐 슈미를 도라보지 못하고 급히 다라나려하여 후원으로 다르며 공중의 오르고져 하나 즈연 몸이 무겁고 문으로 니닷고져하나 문마다 제요축이 브터시니 마음이 황〃〃하여 후원 님목 스이의 숨으니 계군이 츠[춧]기로 분〃〃하니 원슈[장추성] 진언을 녀하고 참요검을 두루니 구미회 나오되 동시 부인의 얼굴을 변치 아니〃〃 원슈 봉안을 써 찰시하니 요정이 혼 소리의 본형을 드러니니 천년 묵은 구미회라 원슈에게 다라들거늘 원슈 급히 제요부작을 더 지니 미회 부작을 물고 공중의 오르니 거체 업는지라 좌위 더경하여 차지려 하더니 오리게야 공중으로서 느껴지니 원슈 부작을 꼭뒤의 붓치고 철삭으로 결박하니 구미회 능히 용신치 못하느니라 (중략) 더로상의 니여 뺏블을 뺏코 블 가운데 미호를 잡으 너허 슬으니 화계 하늘의 즈옥하고 누린니 창턴하더라⁴¹⁾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장추성은 주술과 참요검으로 “천년 묵은” 여우가 본색을 드러내도록 하고, 뒤통수에 부적을 붙여 생포한다. 그리고 여우의 국문을 들은 후, 임금이 화형시키는 것으로써 대단원의 퇴치담이 마무리된다. 퇴치담의 결말부를 보면, 여우에게 죽을 뻔했던 계씨와 장난주가 백영도사의 도움을 받아 장추성과 함께 돌아온다. 그리고 여우에게 난타당한 설경문은 노복과 유모에 의해, 정기가 거의 소진된 설 시량은 백영도사의 환약으로 살아난다.

이렇듯 온 가족이 화합하는 작품의 결말로 볼 때, 〈옥난기연〉의 여우 퇴치담은 가정 평화 및 婦道の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장추성이라는 작품 전체 주인공의 영웅성 발현에도 일정 부분의 주안점을 두는 동시에 설경문이라는 퇴치담 내 주인공의 지극한 효를 부각시키는 것 역시 잊지 않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핍박받는 설경문 가족이 아닌 장추성이 퇴치 주체가 되는 것은 임금의 명을 받은 관료가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와도 연결된다. 곧, 국가 권력이 악을 정치해주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옥난기연〉은 여우의 패악이 가정 내의 사건만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1) 〈옥난기연〉 권지십오, 9a-12a면.

4. 여우 퇴치담의 내적 의미

지금까지 고전소설 열 작품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퇴치 이전의 여우는 공통적으로 악의 존재이자 혼란을 야기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선은 여우가 인간의 가장 두려운 공포심을 자극하여 무한한 상상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하였고,⁴²⁾ 이승우는 신성했던 여우의 원형적 이미지가 변신적 사유로 인하여 공포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불길한 이미지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하였다.⁴³⁾

그러나 '인간의 내재적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우의 원형적 심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소설 개별 작품마다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포괄하여 적용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퇴치담 내 주인공 중 여우를 두려워하는 주인공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퇴치자들은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과정이 어떻든 간에 종국에는 퇴치해버린다. 이는 고전소설이 여우의 원형적 심상을 바탕으로 하되 주인공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여우 퇴치담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는 작품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3장의 양상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각 유형별로 여우 퇴치담이 갖는 내적 의미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은 여우와 주인공 사이에 전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설정됨으로써, 주인공의 현세 고난이 전생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인과응보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그런 만큼 전세 인연으로 인한 현세의 고난은 지속적이며, <삼한습유>와 같이 일개인이 죽음에 이르거나 <임씨삼대록>처럼 가정 및 국가가 흔들리는 등 여우의 위해 정도가 대단한 것으로 그려진다. 곧 여우의 위해가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국가로 확대되어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여우의 퇴치는 주인공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대리자 혹은 대표자라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인공이 현세에서 겪는 고난(여우 퇴치담 내 고난)의 원

42) 김지선, 앞의 논문, 514면.

43) 이승우, 앞의 논문, 56-65면.

인을 모두 여우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러한 여우를 퇴치하려는 주인공의 염원과 제3자의 퇴치 행위 일체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적강자인 주인공의 현세 고난은 천상에서 죄를 지은 데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여우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은 여우를 전생에서부터 악한 존재로 형상화시킴으로써, 현세에서 주인공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여우라는 존재에게서 찾고 있다.

또 여우와 주인공 간에 전세 인연이 있는 경우는 여우가 人形으로 등장하는 우리 고유의 설화나 문헌,⁴⁴⁾ 중국 문헌이나 소설⁴⁵⁾ 등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전생과 이생을 분리하는 이원적 세계관이 우리 소설에만 보이는 독창적인 의식 구조임을 증명해준다. 곧 고전소설 일반에서 자주 쓰이는 창작 기법을 가공하면 서 여우 퇴치담 역시 이와 같이 독특한 유형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은 성격이 들로 나뉜다. <표강상전>, <해당향>, <이화전>의 경우는 여우의 복수에 의해 현세 인연이 맺어지면서 여우의 위해가 주인공 1인에게만 국한된다. 따라서 여우 퇴치의 문제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또 여우의 형상화가 단순히 악으로서의 ‘한 개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한 마리의 여우만 퇴치되면 해결되는 일회성의 퇴치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세 작품은 주인공과 여우가 사적인 원한을

44) 구비문화대계의 여우 관련 설화 222건 중 여우가 본형으로 등장하는 각편은 75건이며, 인형으로 등장하는 각편은 147건이다. 본형 각편은 물론이거니와 인형 각편에도 전세 인연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 우리의 오랜 문헌인 『삼국유사』(제2권, 제2 기이편 하, 진성여왕과 거타지)에서 여우는 사미승으로 변신하는 신이하면서 사특한 존재(“沙彌果來, 誦呪如前, 欲取老龍肝, 時居陀射之中, 沙彌卽變老狐, 墜地而斃”)로 그려지고 있는데, 역시 전세 인연과 관련한 서술은 없다.

45) 西晉 시대의 박물지인 『玄中記』(淸十種古逸書本)에는 여우가 목은 햇수에 따라 각기 다른 인형으로 변신할 수 있다(“狐, 五十歲, 能變化爲婦人, 百歲, 爲美女爲神巫, 或爲丈夫與女人交接”)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태평광기』에는 447권부터 455권까지 ‘狐’에 대한 9개 조항 83건이 있는데, 여우가 본형으로 나오는 조항은 33건이며, 인형으로 나오는 조항은 50건이다. 이 두 문헌에는 전세 인연에 얽힌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 명의 신마소설인 <봉신연의>에는 여우 정령이 소달기의 몸에 빙의하여 주왕의 귀비가 된 후, 작란을 벌이다가 강태공에게 퇴치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여우와 주왕 혹은 여우와 강태공 간에 전세의 인연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맺어 그것을 지속해 나간다. 그리고 여우의 퇴치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여우의 위해를 사적인 영역에 남겨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우치전>과 <옥루몽>의 여우 퇴치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어 있다. 그렇기에 여우의 형상화는 산이나 굴에 은거하고 있는 '집단화된 존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곧 집단화된 악의 표상이며, 그 악이 언제든 집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작품의 퇴치 주체는 주인공 혹은 조력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우의 속성을 지녔던 인간과 주인공에게 교화된 여우가 동참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以夷制夷의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여우의 작란이 보다 큰 단위의 문제거리로 가지화됨에 따라, 여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자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퇴치담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우치전>과 <옥루몽>은 앞의 세 작품에서 발전하여, 주인공과 여우의 사적 원한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경우라 하겠다.

여기서 사적 원한이 공적 원한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첫 번째 유형인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과 상통한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삼한습유>와 <임씨삼대록>은 여우와 같은 악은 단순히 죽여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사냥개에게 물려 죽게 하거나 화형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 두 작품은 전세 인연이라는 강력한 끈에 의해 야기된 문제이기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단의 힘을 빌려 여우를 퇴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성은 여전히 개인적 원한을 끊는 데 있다. 곧 공적 영역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개인적 원한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우치전>과 <옥루몽>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우를 죽여 없애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기 보다는 교화해야 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두 작품의 마지막 퇴치담은 여우를 석갑이나 호리병에 가두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는 여우라는 악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들의 교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악한 존재는 사회에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다시 나타났을 때는 <전우치전>의 전우치나 <옥루몽>의 소보

살과 같이 감화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작품은 여우라는 악한 존재를 교화하고, 교화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공간에 몰아넣어 사회와 단절시킴으로써 첫 번째 유형의 〈삼한습유〉, 〈임씨삼대록〉보다 집단 및 사회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세 번째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에서 여우는 주인공 혹은 제3자와 전세 및 현세의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퇴치되고 있다. 원한이나 복수 등 개인적인 인연이 없음에도 퇴치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소현성록〉과 〈태원지〉에서 여우의 위해는 일개인 혹은 소규모의 구성원을 유혹하는 정도였으며, 〈옥난기연〉은 설씨 가문을 어지럽히고 젊은 의원을 유혹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여우가 쉽게 퇴치되지 않을 때, 그 위험성은 더 큰 집단 및 사회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세 작품은 여우의 악행이 국가·사회의 문제로 야기되기 이전에 여우를 퇴치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곧 악의 표상으로서의 여우를 상징한 후, 공공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위해 퇴치해버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악의 소지를 미연에 근절해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상술하였듯이 앞의 두 유형은 여우로 인한 문제가 개인 혹은 사회에 이미 크게 부각된 이후에 여우를 퇴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유형만은 여우의 상당한 악행이 더 큰 단위에서 드러나기 이전에 개인(혹은 소집단)의 차원에서 퇴치해버린다. 여기서 여우의 위해가 개인의 영역에 머문 〈표강상전〉, 〈해당향〉, 〈이화전〉의 경우도 사회 및 국가로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들은 여우와 주인공 간의 현세의 질긴 인연을 끊어내고 주인공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는데 방점이 찍힌다. 곧 이 작품들의 퇴치자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인연을 끊어내기 위한 일차적 목적에서 여우를 퇴치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소현성록〉, 〈태원지〉, 〈옥난기연〉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 확산을 미리 예단하고 방비하는 퇴치자의 예지력 및 감식안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론,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과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도 기본적으로 퇴치자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갖는다. 여우의 위해가 공적 영역으로 확산된 후에 퇴치하는 것과 그 이전에 퇴치하는 것을 가지고 영웅성의 우위를 판가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이 유형에서는 넓은 범위로의 악의 확산을 미리 예방하는 퇴치자의 모습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영웅성 발현을 보여준다 하겠다.

5. 맺음말

고전소설에서 여우는 요괴의 형상이 아닌 실제 인간의 형상을 띠고 등장하며, 서사 전개상 악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로 쓰이고 있다. 그렇기에 흥미뿐만 아니라 악인의 퇴치라고 하는 주제 의식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우 퇴치담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양상과 내적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은 인연을 기준으로 ①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②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 ③인연과 무관한 퇴치형,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은 주인공과 여우의 전세 인연이 현세로 이어짐으로써 여우의 위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그려지며, 여우의 위해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인공의 현세 고난의 원인을 여우라는 존재에게서 찾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현세 인연에 얽힌 퇴치형’은 주인공과 여우가 현세에서 한 번 이상의 인연을 맺은 후 개인이나 집단이 퇴치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 유형은 여우의 위해가 사적 영역에 제한된 경우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경우를 모두 보여준다. 특히 공적 영역의 확대를 보여주는 경우는 집단 및 사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어, 개인적 원한을 끊는 속성을 가진 첫 번째 유형과 변별점이 있다 하겠다.

세 번째 ‘인연과 무관한 퇴치형’은 주인공과 여우 사이에 전세 및 현세 인연이 없으며 여우의 위해가 소규모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가 곧바로 퇴치된다. 이는 국가 및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우라는 악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퇴치자의 선견지명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앞의 두 유형이 여우로 인한 문제가 개인 혹

은 사회에 이미 드러난 이후에 여우를 퇴치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하겠다.

이처럼 본고는 열 작품을 대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다른 고전소설의 여우 퇴치담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 세 가지 유형에 모두 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작품의 내적 의미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추후 여러 작품을 더 보충한다면 논의의 폭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여우, 퇴치, 퇴치담, 전세 인연, 현세 인연

투고일(2015. 8. 3), 심사시작일(2015. 8. 5), 심사완료일(2015. 8. 24)

〈Abstract〉

The Patterns and Meanings of Fox Extermination Narratives in Korean Classical Novels

Lee, Hu-nam*

In Korean classical novels, the fox is described as an antagonist to be exterminated and a negative being, and most of the stories end up with its extermination. By examining ten Korean classical novels containing extermination narratives, which are *Samhanseupyu*, *Imssisamdaerok*, *Pyogangsangjeon*, *Haedanghyang*, *Ihwajeon*, *Jeonuchijeon*, *Okrumong*, *Sohyeonseongrok*, *Taewonji*, and *Oknangiyeon*, this study classified the narratives by type, and derived patterns and internal meanings from the stories.

Fox extermination narratives contained in Korean classical novels are, depending on karmic relation, divided into those of extermination involving karma in the previous life, those of extermination involving karma in the present life, and those of extermination not involving karma. First, in the narratives of extermination involving karma in the previous life, the hazard of the fox is expanded from a private sector to a public sector, and the cause of the hero's sufferings in the present life is found in the fox.

Second, the narratives of extermination involving karma in the present life are subdivided into those in which the hazard of the fox is limited to a private sector and those in which it is expanded to a public sector. The latter group is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group, the essence of which is in resolving a grudge.

Third, in the narratives of extermination not involving karma, the hazard of the fox is confined within a limited area but it is exterminated immediately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a serious problem to the state and society. Moreover, this type i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two in which the fox is exterminated only after problems caused by the fox are exposed to individuals or societies.

Key Words : fox, extermination, extermination narrative, karma in the previous life, karma in the present life

*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